

#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 이미지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강 희 선\* 유 지 애\*\*

## 국문초록

부부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간에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가진 하나님 이미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1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술 통계 분석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하나님 이미지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합리적 부부 갈등 해결 전략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회복을 돕는 기독교 상담과 교회 공동체의 수용적 돌봄이 제공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부부 갈등, 부부 갈등 해결전략,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우울, 하나님 이미지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8일

\* 힐링상담센터 센터장(제1저자,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공동저자)

## I. 여는 글

가정은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가는 장(場)이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에서는 가정을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 시작하여(창 2:24),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부부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엡 5:24-25),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엡 6:4; 잠 22:6). 이처럼 가정을 둘러싼 말씀들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COVID-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현상이 펼쳐지는 작금의 현실은 이미 갈등 관계에 놓인 가정에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근 이 년에 가깝게 여전히 전 세계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택근무로의 전환, 물리적 학교 폐쇄와 같은 사회적 활동 반경 축소는 온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양적 영역의 증가가 늘 질적 영역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팬데믹 시국 속에서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현상은 그 단적인 예로 제시될 수 있다(이미정, 2020).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타인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기만 할

경우, 이는 한 개인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보고된 다수의 실증 연구들은 부부 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각각이 한 개인의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강복정 외, 2016; Ottenbreit & Dobson, 2004; Marchan & Hock, 2000).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개인은 현재 우울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울 개입이 초기에 이루어질 때, 그 치료 효과가 좋고 재발률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들을 참고할 때(Kovacs et al., 1997), 우울에 취약한 구조에 놓인 개인들을 - 가령 부부관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어린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 중에 있는 - 빠르게 찾아내서 시의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은 기독교 가정이든 비(非) 기독교 가정이든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며, 어려움이 생기면 인팍으로 도움을 요청해 지원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가정들은 가정 내 어려움을 노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하기도 한다. 교회 내 직분상 혹은 믿음의 선배로 성도들이 지각하고 있을 경우, 가정 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김영희, 2007).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우울은 방치할수록 치료 예측이 좋지 않다(Kovacs et al., 1997).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신앙공동체에서는 제시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움을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정이 가진 강력한 자원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놓인 기독교인의 경우,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재해석 및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뿐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자들 간에도 면밀한 구분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이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표상(image)을 가지고 있다(김난예, 2001).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미지’는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와 그 은혜에 대한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각 개인이 삶에서 경험한 특정 사건들은 하나님을 곱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획득할 수도 있다(심정연, 2016; 홍구화, 2011; Clair, 1994; Rizzuto, 1979). 즉, 하나님 이미지 혹은 표상은 각 개인이 경험한 삶의 맥락 및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강력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와 같은 실존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과 신앙 맥락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 변수라는 점이다. 즉,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원인) 우울 수준을 낮추는 효과(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부 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할 경우(원인)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결과). 이는 기독교인이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 - 왜곡 - 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 하나님 이미지 각각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기독교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 하나님 이미지 지각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시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우울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비용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 2021). 실제로 2015년 대비 2017년의 서울시 정신보건 전체 예산은 5.52%,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2017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서). 더욱이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과 맞물려 개인의 사회적 반경 축소는 개개인의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건강 지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일각에서는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감기처럼 우울은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우울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땐 중증 및 만성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권석만, 2016). 실제로 우울증은 재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발 간격은 감소하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하정은, 2002).

우울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자살로, 우울 증상 정도는 자살 시도 횟수와도 정적 상관을 보인다(하정은, 2002). 다수의 자살 관련 연구에서는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우울을 지목하고 있는데(김혜원, 조성연, 2011; Robert & Chen, 1995; Hunt et al., 2006; Mann, Bortinger, Oquendo, Currier, Li, & Brent, 2005), 우리 사회 내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의 1, 2위가 자살임을 고려하면 우울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통계청, 2020). 이처럼 우울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울은 조기에 개입될 경우 그 예후가 좋고 지속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하정은, 2002)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우울은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동반될 때 얼마든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우울을 위시한 정신건강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는 2009년 52.3%, 2013년 42.8%, 2015년 3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된다(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5)<sup>1)</sup>.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우울 개입 시점을 늦

1)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 문항에서는 우울증을 질병으로 이해하는지를 물었으며, 사회적 동조로 인한 긍정적 편향(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문항 값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값임 (2015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취 개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울로부터의 탄력성 있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우울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즉, 나약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바라보는 관점 - 은 일반 사회 내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우울은 청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등 모든 인구 사회학적 집단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상당수의 기독교인 역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김미경, 2010).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 역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위축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친밀성을 상실하여 절망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한 모습이 나타난다(김영희, 2007). 평신도들뿐 아니라(박미하, 2014)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 역시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다(김준, 2014). 더욱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에게서 우울증적인 증상이 관찰되며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존 번연과 같이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들 역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김영희, 2007; 김준, 2014).

기독교인들은 체면상, 직분상 가정 안팎의 문제 및 위기를 부정하거나 잘 드러내지 않는 바람에 개입이 초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영희, 2007). 특히, 일부 기독교인들은 ‘슬픔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지 않다’거나 ‘신앙인이자면 늘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강박적으로 하면서 감정을 부정하거나 문제를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김영희, 2007: 37-38). 혹은 ‘우울증에 걸릴 경우 자신이 영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증명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죄책감(김영희, 2007: 38)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기독교인 역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 등을 감내하고 살아간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불화는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미숙, 문혁준, 2005; 이연정, 최은실, 2019; Deater-Deckard, 1998), 기독교인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배우자와의 관계 갈등 문제 등 비(非)기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기독교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백정미, 2014).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인 우울증을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김영희, 2007). 우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우울은 방치할수록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운 성질을 갖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과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교회 내 신앙공동체에서 소그룹들의 교제를 통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세밀하게 관찰 및 돌봄 제공을 해야한다. 그리고 전문 교육을 받은 기독교 상담자와의 연결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으로 우울로부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어린 자녀들을 양육 중에 있는 다수의 부모들은 육아와 양육으로 인하여 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은 부모에게 때때로 좌절감을 주거나 소진을 경험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및 누적될 경우 부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Crnic & Greenberg, 1990). 정리하



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편 경험을 의미한다(Deater-Deckard, 1998).

다수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에 대하여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문혁준, 2005).

나아가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elsky(1984)는 부모의 스트레스의 요인 중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김현미, 도현심, 2004; 김현령, 류수민, 2015; 이영진, 노승희, 2017; Mash & Johnston, 1983; Puff & Renk, 2014)를 보고하거나 나아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박지현, 이동혁, 2016; Neece, Green, & Baker, 2012)까지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사노동의 증가, 여가 시간의 부족, 양육 및 교육 등의 가계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다(정희정, 2011). 실제로 기독교 부모들 역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분노하고,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정희정, 2016).

그러나 기독교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인

식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부부 갈등 해결전략

가족은 아이들이 경험하고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초의 사회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특히 갈등 관리는 가족 내에서 부모 간의 대화를 관찰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Darling & Steinberg, 1993). 가족 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아이들의 대인관계 기술, 관계에 대한 기대와 믿음, 그리고 형제자매 및 또래와의 실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Stocker & Youngblade, 1999). 그리고 상당한 연구가 부부 갈등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것으로(도현심 외, 2012;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이연정, 최은실, 2019), 부부 갈등 관리는 결혼 만족과 우울 사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데, 건설적인 갈등(constructive conflict)은 우울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u Rocher et al., 2011). 부부 성별로 보면, 남편이 부부 갈등을 더욱 크게 지각할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우울증과 더 연관성이 높고, 남편의 의사소통 장애가 특히 부부와 가족에게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Du Rocher Schudlich & Cummings, 2003, 2007).

부부는 서로 교육 수준이나 종교, 가정 문화, 생활 습관 등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다. 결혼 전에는 가려져 있던 성장 배경이 다름에서 오는 이 차이점들이 결혼 후에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유발된 부부 갈등은 의사소통의 결여, 성적 부조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역할 갈등 등의 관계적 위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미경, 2010).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부 갈등을 완화하려면 갈등 대처방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김영희, 정선영, 2007; Gottman, 1995). 독일의 심리학자인 Kenneth

W. Thomas 와 Ralph H. Kilmann(1974)은 갈등 해결의 목표를 타자 지향성과 자기 지향성에 따라 협력, 타협(절충), 회피, 주장, 순응(양보, 순응, 호의) 5가지로 구분하여, 문제와 갈등 상황에 따라 5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갈등 해결전략에서 갈등 상황에 순응하는 경우나,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일 수 있다(Putnam et al., 1988).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처로서(Putnam et al., 1988), 회피전략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ttenbreit & Dobson, 2004; Marchand & Hock, 2000). 부부가 항상 싸운다거나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박영화, 고재홍, 2005; Bowman, 1990; Gottman, 2014)는 우울을 줄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기독교인 부부들도 부부 사이에 갈등을 겪는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표현하면 신앙의 차원까지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교회에서는 행복한 부부인 척하는 것은, 더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만들거나 자신의 모순된 모습에 서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백정미, 2014). 한편, 부부간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종교 활동에 더 열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부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거나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백정미, 2014). 기독교인 부부 갈등의 예로서, 부부가 죄인 된 인간으로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김미경, 2010; 김준, 2017; 김준수, 2001). 이때 갈등 해결을 위하여 나만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한다는 깨달음과 배우자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

한 나약한 존재라는 공황의 관점과 공감의 필요가 있다(김준, 2017).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조남희, 2010). 그래서 부부의 갈등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체험이 배우자를 향하여 공황히 여기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연관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준, 2017; 안경승, 2008).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부부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적 자원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부부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위기를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성숙시킬 뿐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김미경, 2010).

#### 4) 하나님 이미지

인간의 모든 관계 중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며(조남희, 2010), 관계성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원만한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Clair, 1994).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각 개인의 느낌, 즉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다(김난예,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관계에서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 경험에 의해 재구성된 하나님 이미지를 뜻한다(배은주, 2012). 사람이 발달 단계에 걸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이미지가 변형되어(심정연, 2016; 홍구화, 2011; Clair, 1994; Rizzuto, 1979),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 이미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권수영, 2005). 그럼에도 개인이 내적으로 형성한 하나님 이미지는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위로를 받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며,

좌절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박민수, 반신환, 2002).

개인의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정서적으로 긍정 자원을 촉진한다(황혜리, 김지윤, 2012; Bradshaw, Ellison, & Flannelly, 2008). 하나님 이미지가 감정적 감기라고 하는 우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황혜리와 류수정(2006)의 연구에서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Kirkpatrick과 Shaver(1992)의 연구에서 하나님께 대한 안정적인 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같은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되고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하는 치유의 힘을 제공받는다. 이는 하나님 이미지가 변하면, 자신들에 대한 관점과 다른 사람 및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때문이다(김영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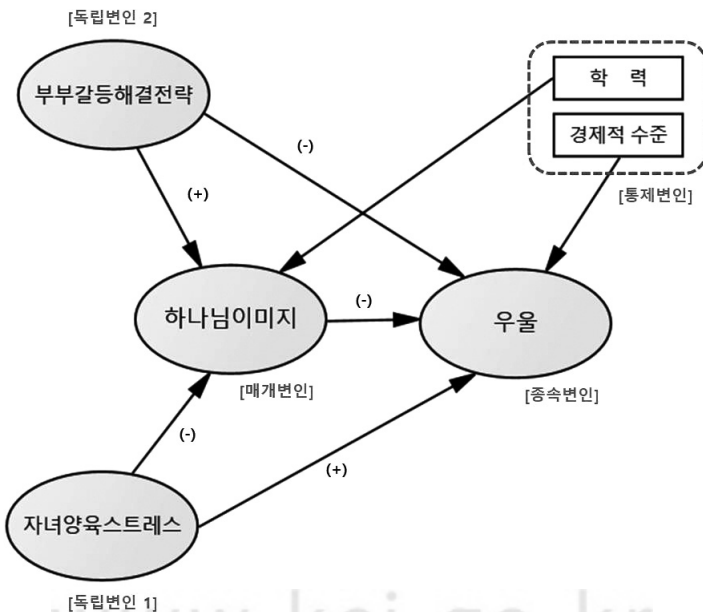
하나님은 결혼생활을 통해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김준, 2017).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부부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활기 있고 성숙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갈 힘을 제공한다(백정미, 2014).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관계를 성숙하게 지속시켜 나가는 영적인 훈련장이 바로 가정이다(백정미, 2014).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이미지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연구(김은주, 전요섭, 2007)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용납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인 승인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독특한 결과가 나타났다. 승인감은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수용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승인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이 강조된다(배은주, 전요섭, 2005; Rizzuto, 1979).

## 2.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 하나님 이미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 중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학력, 경제적 수준 변인을 공변인 형태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모형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자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부부 갈등 해결전략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 중에 있는 기독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글 온라인 설문 포맷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자료는 2021년 8월 3일에서 8월 15일까지 약 13일간 수집되었으며, 설문조사 방식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하나인 눈덩이 표집법이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결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수는 216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였으나 이 중 응답의 불성실성이 확인된 4부를 제외하여 212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기홍, 이승환, 최윤영(2019)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울 변인들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값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 변인 간의 신뢰도는 .91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하나의 잠재 변인 내 관측 변인으로 설계하기에는 12개의 문항 수는 매우 많다. 이에 우울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 우울1, 우울2, 우울3, 우울4, 우울6은 우울감 1로, 우울5, 우울7, 우울8, 우울9, 우울10, 우울11, 우울12는 우울감 2로 두 개 문항으로 재 구분되었다. 보통 하위 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7 이상일 경우에 하나의 문항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긴다. 본 연구에서 새로 구성한 우울감 1과 우울감 2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각각 .900, .817로 나타나, 새로운 관측 변인 구성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독립변수 1: 자녀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Abidin(1983)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 척도 120문항을 홍희란(2002)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하고, 임진미(2013)의 연구에서 총 22문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연숙(2016)이 이 척도의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부모의 고통(건강과 배우자 관계 등)의 3개의 하위 영역과 각각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총 22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별 응답 값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 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각각 자녀 양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적 스트레스 .812,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755, 부모의 고통 .809으로 확인되었다.

(3) 독립변수 2: 부부 갈등 해결전략

부부 갈등 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homas와 Kilman(1974)이 개발한 척도를 박상연(1994)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



려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재구성하고 부부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갈등 해결의 목표를 타자 지향성과 자기 지향성에 따라 협력, 타협, 회피, 주장, 순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각 6 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5개 하위요인 분석 결과, 협력과 타협 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 타협-협력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여,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박상연(1994), 정소영(2018)의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해당 척도는 타협(타협-협력), 회피, 주장, 순응의 4개 하위 영역과 각각의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총 30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값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갈등 해결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 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각각 타협 .837, 회피 .711, 주장 .776, 순응 .627으로 확인되었다.

#### (4) 매개변수: 하나님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Richard T. Lawrence (1997)가 개발한 것을 김난예(2002)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하나님 표상 검사(God Image Assesment: GIA)를 사용하였다. GIA는 개인 배경 특성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이창옥, 2013). 하위요인은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으로, 소속감은 현존과 도전, 승인감은 용납과 긍휼, 통제감은 영향력과 섭리이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나님 이미지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현존 .932, 도전 .817, 용납 .697, 긍휼 .773, 영향력 .845, 섭리 .854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방법 및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변수 신뢰도 및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상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chi^2$ 과 IFI, NF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본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 및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총효과를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살펴보았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상 SPSS 24.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이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 3.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2)

	문항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	남자	61	28.8	1.71	0.45	1	2
	여자	151	71.2				
나이	-	-	-	40.52	5.51	30	54
학력	고졸 이하	14	6.6	2.17	0.53	1	3
	대졸	147	69.3				
	석사 이상	51	24.1				
거주지	서울	124	58.5	2.05	1.98	1	10
	경기도	52	24.5				
	충청도	9	4.2				
	부산	2	0.9				
	인천	11	5.2				

거주지	대구	4	1.9				
	대전	3	1.4				
	경상도	2	0.9				
	해외	5	2.4				
경제 수준	매우 어려움	6	2.8	3.04	0.75	1	5
	조금 어려움	33	15.6				
	보통	123	58.0				
	여유 있음	46	21.7				
	매우 여유 있음	4	1.9				
결혼 기간	-	-	-	10.58	5.70	1	30
자녀 수	1명	66	31.2	1.85	0.70	0	4
	2명	113	53.3				
	3명	31	14.6				
	4명	2	0.9				
이혼 경험	이혼 경험 있음	6	2.8	1.85	0.70	0	4
	이혼 고려 중	3	1.4				
	이혼 경험 없음	203	95.8				
구원의 확신	구원 확신 있음	196	92.5	1.85	0.70	0	4
	구원 확신 없음	16	7.5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성별, 평균 나이, 학력 수준, 거주지,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61명, 여성 151명으로 여성(71.2%)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0.52세이며,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 14명, 대졸 147명, 석사 이상 12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는 서울 124명, 경기도 52명, 충청도 9명, 부산 2명, 인천 11명, 대구 4명, 대전 3명, 경상도 2명, 해외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 수준은 매우 어려움 6명, 조금 어려움 33명, 보통 123명, 여유 있음 46명, 매우 여유 있음 4명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대졸 이상(93.4%)으로 전반적

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응답자(88.2%) 비율이 높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적 수준은 보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평균 결혼 기간, 평균 자녀 수, 이혼 경험 및 구원 확신 여부와 관련한 문항 분석 결과, 평균 결혼 기간은 10.58년이고 평균 자녀 수는 1.85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명, 이혼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명, 이혼 경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3명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6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명으로 확인되었다.

##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결과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표본 값의 이상치 점검을 위해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최소 0.42~0.78로 표본 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왜도 및 첨도도 각각 절댓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변수 값들을 살펴보면, 첫째, 종속변수인 부모의 우울 정도는 평균 1.8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간 그렇지 않다(2)’ 응답 값과 비교할 때 부모의 평균 우울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함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2.77로 ‘보통이다(3)’ 응답 값보다 약간 낮고,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보통이다(3)’ 응답 값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매개변수인 하나님 이미지는 평균 4.07로 ‘대체로 그렇다(4)’ 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다수가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n=212)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종속변수	우울	1.89	0.78	1.00	4.61	1.07	0.62
독립변수1	자녀 양육 스트레스	2.77	0.72	1.28	4.57	0.20	-0.45
독립변수2	부부 갈등 해결전략	3.53	0.42	2.42	4.63	0.02	-0.32
매개변수	하나님 이미지	4.07	0.48	2.52	4.87	-0.77	0.33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표 3〉과 〈표 4〉는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상관관계를 각각 정리한 결과이다. 우선 잠재 변수 간의 상관 방향성은 관측 변수 간의 상관 방향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과 하나님 이미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 해결전략과 하나님 이미지와는 상호 간에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 (n=212)

	우울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	하나님 이미지
우울	1			
자녀 양육 스트레스	.594***	1		
부부 갈등 해결전략	-.400***	-.366***	1	
하나님 이미지	-.336***	-.247***	.359***	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관측 변수 간 상관관계 (n=212)

척도	하위영역	1-1	1-2	2-1	2-2	2-3	3-1	3-2	3-3	3-4	4-1	4-2	4-3	4-4	4-5	4-6
우울	1-1	1														
	1-2	.808 ***	1													
자녀 양육 스트 레스	2-1	.562 ***	.481 ***	1												
	2-2	.554 ***	.519 ***	.771 ***	1											
	2-3	.551 ***	.448 ***	.809 ***	.797 ***	1										
부부 갈등 해결 전략	3-1	-.239 ***	-.265 ***	-.157 *	-.254 ***	-.182 **	1									
	3-2	-.284 ***	-.261 ***	-.237 **	-.183 **	-.222 **	.202 **	1								
	3-3	-.258 ***	-.299 ***	-.323 ***	-.310 ***	-.265 ***	.405 ***	0.11 0	1							
	3-4	-.262 ***	-.280 ***	-.248 ***	-.255 ***	-.220 **	.548 ***	.358 ***	.488 ***	1						
하나님 이미지	4-1	-.338 ***	-.336 ***	-.222 **	-.269 ***	-.258 ***	.260 ***	.195 **	.151 *	.193 ***	1					
	4-2	-.288 ***	-.290 ***	-.149 *	-.178 **	-.143 *	.350 ***	.224 **	.215 **	.321 ***	.779 ***	1				
	4-3	-.293 ***	-.306 ***	-.250 ***	-.270 ***	-.207 **	.281 ***	.272 ***	.278 ***	.294 ***	.453 ***	.474 ***	1			
	4-4	-.16 *	-.223 **	-.166 *	-.167 *	-.134	.199 **	.150 *	.244 ***	.242 ***	.591 ***	.661 ***	.498 ***	1		
	4-5	-.196 **	-.172 *	- 0.084	-.144 *	-.143 *	.245 ***	0.09 7	0.08 3	.184 **	.777 ***	.746 ***	.346 ***	.534 ***	1	
	4-6	-.243 ***	-.274 ***	-.168 *	-.216 **	-.199 **	.277 ***	0.10 3	.168 *	.168 *	.773 ***	.739 ***	.328 ***	.554 **	.677 ***	1

3) 측정 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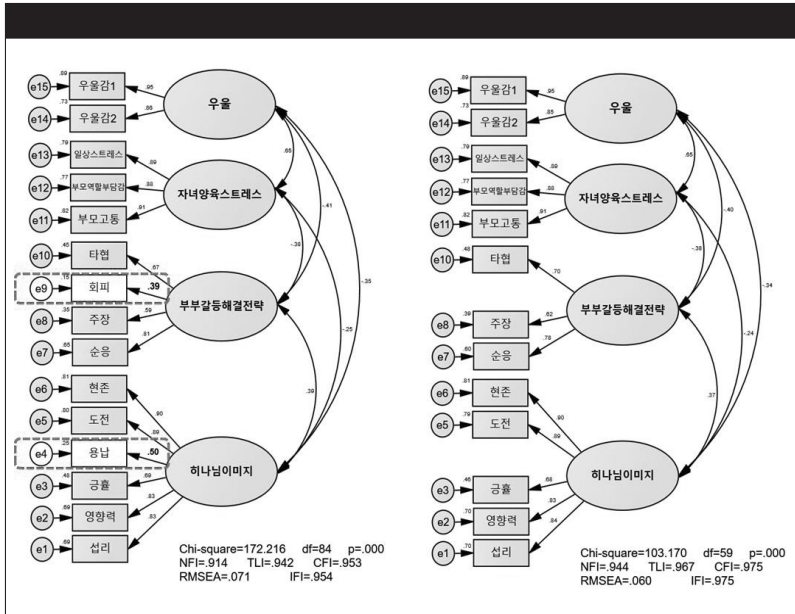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잠재 변수 간 상관 및 관측 변수의 요인 적재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먼저 잠재 변수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변인 간 절댓값 상관이 -.41~.65의 범위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 변수 내 관측 변수들 간

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요인 적재치를 확인한 결과, 두 변수를 제외하고 .59~.95의 범위로 나타났다. 보통 요인 적재치는 .6 이상일 때 변수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측정 모형 검증 결과, 회피 관측 변수는 부부 갈등 해결전략 잠재 변수와 .39의, 용납 관측 변수는 하나님 이미지 잠재 변수와 .50의 요인 적재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회피와 용납의 두 관측 변수는 집중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두 변수를 제거하여 측정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는 .62~.95의 범위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표 5〉, 〈그림 2〉 참조).

〈표 5〉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 전과 수정 후 (n=212)

잠재변수	관측변수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 전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 후			
		$\beta$	S.E.	C.R.	SMC	$\beta$	S.E.	C.R.	SMC
우울	우울감1	0.945	0.110	13.695***	0.893	0.946	0.111	13.614***	0.894
	우울감2	0.855			0.732	0.855			0.731
자녀 양육 스트레스	일상 스트레스	0.888	0.057	18.754***	0.788	0.888	0.057	18.750***	0.788
	부모 역할 부담감	0.878	0.051	18.262***	0.770	0.878	0.051	18.262***	0.771
	부모 고통	0.906			0.820	0.906			0.820
부부 갈등 해결전략	타협	0.674	0.132	7.915***	0.454	0.695	0.143	7.824***	0.483
	주장	0.594	0.154	7.278***	0.353	0.621	0.166	7.334***	0.385
	회피	0.387	0.156	5.043***	0.653	-	-	-	-
	순응	0.808			0.150	0.776			0.603
하나님 이미지	현존	0.901	0.083	16.650***	0.812	0.903	0.081	16.896***	0.815
	도전	0.892	0.061	16.109***	0.795	0.887	0.060	16.213***	0.787
	영향력	0.829	0.072	14.469***	0.688	0.835	0.070	14.728***	0.697
	금휼	0.690	0.061	11.095***	0.477	0.680	0.060	10.963***	0.463
	용납	0.502	0.070	7.488***	0.252	-	-	-	-
	섭리	0.829			0.687	0.836			0.698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수정 전과 수정 후

마지막으로 측정 모형의 수정 전 모형과 수정 후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측정 모형 적합도 비교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정 전 측정 모형 적합도의 추정 결과는  $\chi^2=172.216(df=84, p<.001)$ , IFI= .954, NFI=.914, TLI=.942, CFI=.953, RMSEA=.071으로 나타났으나, 수정 후 측정 모형 적합도의 추정 결과는  $\chi^2=103.170(df=59, p<.001)$ , IFI=.975, NFI=.944, TLI=.967, CFI=.975, RMSEA=.06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정전의 모형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며, 수정 모형이 기존 측정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이상 수정 전·후 측정 모형 적합도 결과 값은 <표 11>과 같다.



〈표 6〉 측정 모형의 수정 전·후 모형 간 적합도 비교 (n=212)

적합지수	$\chi^2$	df	IFI	NFI	TLI	CFI	RMSEA	p
수정 전	172,216	84	.954	.914	.942	.953	.071	p<.001
수정 후	103,170	59	.975	.944	.967	.975	.060	p<.001

#### 4) 구조 모형 분석

측정 모형 검증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조 모형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구조 모형 검증은 모형 적합도와 직접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구조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7〉 참조),  $\chi^2=162.999(df=85, p<.001)$ , IFI= .957, NFI=.914, TLI=.946, CFI=.957, RMSEA=.066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의 지수가 .9 이상으로 나타나고 RMSEA가 .07 이하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구조모형의 모형 적합도 (n=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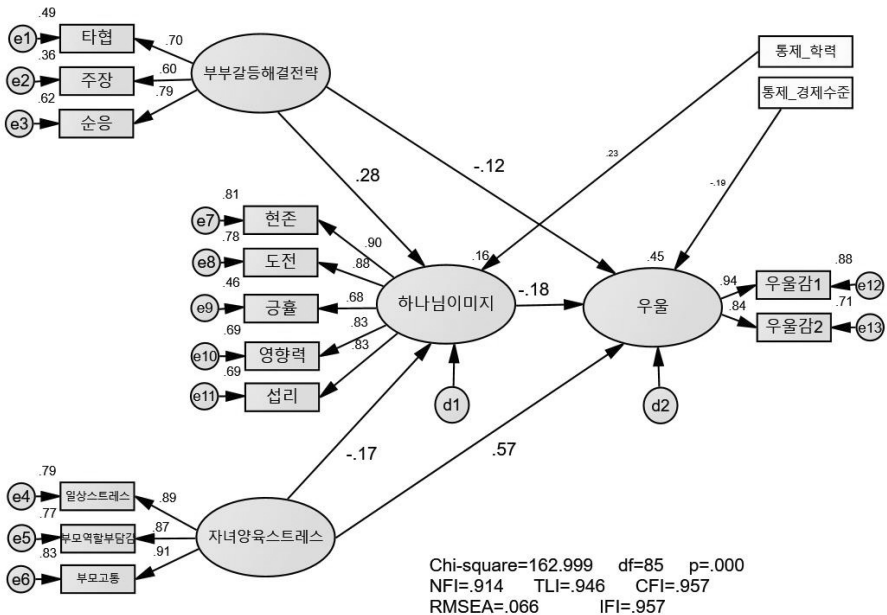
적합지수	$\chi^2$	df	IFI	NFI	TLI	CFI	RMSEA	p
구조모형	162,999	85	.957	.914	.946	.957	.066	p<.001

다음으로 구조 모형의 직접 경로계수 모수치 추정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 본 결과(〈표 8〉, 〈그림 3〉 참조), 첫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하나님 이미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나님 이미지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하나님 이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구조모형의 직접경로계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n=212)

경로	B	$\beta$	S.E.	C.R.
자녀 양육 스트레스 → 우울	0.472	0.571	0.059	8.059***
→ 하나님 이미지	-0.12	-0.167	0.050	-2.392*
하나님 이미지 → 우울	-0.205	-0.178	0.075	-2.736**
→ 우울	-0.189	-0.115	0.114	-1.654+
부부 갈등 해결전략 → 하나님 이미지	0.401	0.284	0.115	3.494***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구조 모형의 직접 경로계수

5) 매개효과 분석

하나님 이미지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추정 법을 사용하여 BC 신뢰구간 방법으로 변인 간 직·간접효과의 정도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9〉를 토대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나님 이미지는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든 직·간접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부부 갈등 해결전략 경로의 직·간접·총 효과 분해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B	$\beta$	B	$\beta$	B	$\beta$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B	$\beta$	B	$\beta$	B	$\beta$
자녀 양육 스트레스 → 하나님 이미지 → 우울	.472**	.571	.025*	.030	.496*	.601
부부 갈등 해결전략 → 하나님 이미지 → 우울	-.189+	-.115	-.082*	-.050	-.271+	-.166

\* $p < .1$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0> 가설 검증 결과

경로	가설 검증
경로 1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우울	가설 1 채택
경로 2 : 부부 갈등 해결전략 → 우울	가설 2 채택
경로 3 : 하나님 이미지 → 우울	가설 3 채택
경로 4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하나님 이미지 → 우울	가설 4 채택
경로 5 : 부부 갈등 해결전략 → 하나님 이미지 → 우울	가설 5 채택

#### 4) 결과 요약 및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하나님 이미지

를 매개로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제시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대처 자원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8월 3일에서 8월 15일까지 약 12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216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요 변인에서 응답의 불성실성이 확인된 4부를 제외하고 212부가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 변수와 우울 변수는 정적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우울 수준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 변수는 우울 변수와 부적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우울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하나님 이미지 변수는 우울 변수와 부적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변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을 낮춘 후, 다시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을 간접적으로도 낮출 수 있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부 갈등 해결전략 변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리적인 부부 갈등 해결 전략의 사용은 우울 수준을 직접적으로도 낮출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변수는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우울 수준을 간접적으로도 낮출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절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해결전략, 하나님 이미지 순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원인 변수로 사용된 모든 요인이 연구 참여자의 우울 수준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우울 수준 증감에 있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부 갈등 해결전략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문영경, 2012; 안수영, 2015)를 지지하며,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대처가 우울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를 지지한다.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결과는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정서적으로 긍정 자원을 촉진한다는 연구(황혜리, 김지운, 2012; Bradshaw, Ellison, & Flannelly, 2008)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부부 갈등 해결전략은 정적으로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부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

는 하나님 이미지와 달리, 자라온 양육환경과 현재 삶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바뀌고, 모든 관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무엇보다 상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를 확인하고 다루어야 하는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투사한 신의 형상이라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체계적인 진단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화된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한 진단 도구(검사지) 제공이 필요하며, 그 필요성(심정연, 2016)을 지지한다. 기독교 부부가 관계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처한 상황을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심리학적 이해와 신앙적 맥락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제공과 이를 돕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울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피고 대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자가 우울감으로 상담실을 찾은 경우, 기혼자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이 있으나 상담자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변인으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당면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피는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으로 인한 우울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수용적 돌봄과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면 활동이 제한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을 다룰 때 자녀의 나이가 비슷한 부부들, 비슷한 이슈를 가진 부부들을 그룹화하여 교육과 상담이 융합된 온라인 소그룹 집단상담으로 진행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해결전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검증하여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부부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고, 상담 현장에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 이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구조화된 도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의 필요성과 상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담자의 중요성을 개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및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되었으나 확률표집방법이 아닌 비확률표집방법에 의거하여 수집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미성년 자녀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각 발달 단계마다 다른 형태와 강도의 돌봄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기독교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 이미지 변수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기독교인이 하나

님 이미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신앙 깊이 및 연륜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 및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 참고문헌 】

- 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손서희 (2016).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451-459.
- 권석만 (2016).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권수영 (2005). 신학과 목회/신학자의 프로이트 살리기(2): 프로이트, 하나님을 죽이다? 사실은?. *기독교사상*, 49(9), 252-263.
- 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 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2), 279-294.
- 김난예 (2001). 기독교와 카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앙과 실천*, 30, 275-305.
- 김난예 (2002). 하나님 표상(表象)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 47-69.
- 김미경 (2010). 중년기 부부 위기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5, 137-159.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영희 (2007). 크리스천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 God-images를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9, 31-67.
-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 갈등과 결혼 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은주, 전요섭 (2007). 영아기 및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신앙 형태 및 하나님 이미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기독교신앙 유무, 교회직분, 신앙 연조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13, 125-148.
- 김 준 (2014). 칼빈주의 설교가 찰스 스펀전의 우울증: 그의 대처 방식과 기독교 상담에의 함축성. *개혁논총*, 31, 187-215.
- 김 준 (2017). 부부 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상담적 관점. *복음과 상담*, 25(1), 9-34.
- 김준수 (2001). 기독교인의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29, 248-277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원, 조성연 (2011).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27-142.
-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 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문영경 (2012).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 질연구**, 30(3), 165-177.
- 박미하 (2014). 감사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2(2), 184-212.
- 박민수, 반신환 (2002). 신형상의 재구성을 통한 자아기능-대상관계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1), 123-137.
- 박상연 (1994). 주장훈련과 가치명료화훈련이 간호사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 양식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지현, 이동혁 (2016). 어머니의 양육행동 결정요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문제행동 간의 관계: 일반청소년집단과 비행청소년집단 비교. **청소년학연구**, 23(6), 201-232.
- 배은주, 전요섭 (2005).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기독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5, 321-346.
- 배은주 (2012).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부모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6), 2575-2588.
- 백정미 (2014). 기독교인 부부관계요인과 영적자원의 역동적 상호작용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03-134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2015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보고서**.
- 심정연 (2016).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 방안 연구-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복음과 상담, 24(2), 183-219.**

- 안경승 (2008). 결혼에서의 용서, **복음과 상담, 10**, 37-66.
- 안수영 (201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장애수용이 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58(1)**, 219-238.
- 연은모, 윤희옥, 최효식 (2015). 부부 갈등, 양육 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 이미정 (2020).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연숙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정, 최은실 (2019). 기혼여성의 부부 갈등과 우울 증상의 관계: 성취지향성 및 사회적 의존성 역기능적 태도의 다중매개효과. **가정과 삶의 질연구, 37(1)**, 85-98.
- 이영진, 노승희 (2017).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4)**, 301-324.
- 이창욱 (2013). 부모 양육태도와 하나님 이미지가 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진미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여가시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 (2018).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정희정 (2016). 성경적 상담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기독교인 어머니의 첫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24(2)**, 285-331
- 조남희 (2010).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집단 목회상담 프로그램 연구.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기홍, 이승환, 최은영 (2019).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 발행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R&D 사업단.
- 하정은 (2002).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병원약사회지, 19(3)**, 315-318.

- 홍구화 (201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333-350.
- 황혜리, 류수정 (2006).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91-212.
- 황혜리, 김지윤 (2012).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63-286.
- 홍희란 (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wman, M. L. (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63-474.
- Bradshaw, M., Ellison, C. G., & Flannelly, K. J. (2008). Prayer, God imagery,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7(4), 644-659.
- Bradshaw, M., Ellison, C. G., & Marcum, J. P. (2010). Attachment to God, images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byter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 130-147.
- Clair, M. S. (1994).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 (이재훈 역,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4 출판).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Du Rocher Schudlich, T. D., & Cummings, E. M. (2003). Parental dysphoria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Marital conflict styles as

- mediators of risk. *Child Development*, 74, 1663–1681.
- Du Rocher Schudlich, T. D., & Cummings, E. M. (2007).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ren's adjustment: Marital conflict styles,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and parenting as mediators of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627–639.
- Du Rocher Schudlich, T. D., Papp, L. M., & Cummings, E. M. (2011). Relations between spouses'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conflic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531.
- Gottman, J. M. (1995).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And how you can make yours last*. New York: Schuster and Simon.
- Gottman, J. M. (201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New York: Psychology Press.
- Hunt, I. M., Kapur, N., Robinson, J., Shaw, J., Flynn, S., Bailey, H., & Appleby, L. (2006). Suicide within 12 months of mental health service contact in different age and diagnostic groups: National clinical surve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8(2), 135–142.
- Kirkpatrick, L. A., & Shaver, P. 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266–275.
- Kovacs, M., Obrosky, D. S., Gatsonis, C., & Richards, C. (1997). First–episode major depressive and dysthymic disorder in childhood: clin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recove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6), 777–784.
- Lawrence, R. T. (1997).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2), 214–226.
- Mann, J. J., Bortinger, J., Oquendo, M. A., Currier, D., Li, S., & Brent, D. A. (2005). Family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and mood disorders in probands with mood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9), 1672–1679.

- Marchand, J. F., & Hock, E. (2000). Avoidance and attacking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among married couples: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9(2), 201–206.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
- Neece, C. L., Green, S. A., & Baker, B. L. (2012). Parenting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across time.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7(1), 48–66.
- Ottenbreit, N. D., & Dobson, K. S. (2004). Avoidance and depression: the construction of the Cognitive-Behavioral Avoidanc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3), 293–313.
- Puff, J., & Renk, K. (2014).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6), 712–727.
- Putnam, L. L., & Folger, J. P. (1988). Communication, conflict, and dispute resolution: The study of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flict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15(4), 349–359.
- Rizzuto, A. M. (1979).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erts, R. E., & Chen, Y. W. (1995).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origin and Angl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1), 81–90.
- Stocker, C. M.,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98–609
- Thomas, K. W., & Kilman, R. H. (1974).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Xicorm Press.

(2021.9.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01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018)에서 9월 28일 인출.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 <https://seoulmentalhealth.kr>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통계청. <http://kostat.go.kr>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Abstract 】

Effects of Child-rear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Parental Depress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Mediating God's Image

Kang, Hui seon\* Yu, Ji Ae\*\*

Couples may be vulnerable to depression if they are experiencing conflicts and crises in marital relationships a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is situation, the Christian's the image of God can affect and be affected at the same time in their l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how child-rear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ffect the depression of parents raising underage children through God's image.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12 parents raising underage children, an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child-rearing stress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God's image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child-rearing stress indirectly negatively affects depression through God's image. Fifth, it was found that the rational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directly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God's image.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provide Christian counseling and receptive care of the church community to help clients experiencing depression to form and restore biblical God's image.

**Key words:** marital conflict, marit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hild rearing stress, depression, God's image

\* Healing Counseling Center / Director

\*\*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art-time Lecturer